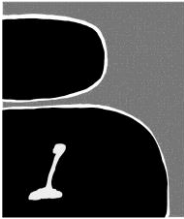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첫째주 일요일 11 시 : 초하루 기도 및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 시 : 전법기도 법회 및 찬불가 배우기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 시

다섯째주 법회는 없습니다.

⊕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 (붓다회)

“미국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붓다회)”에서 함께 배우고 정진과 더불어 봉사를 할 봉사단원들을 기다립니다.

⊕ - Buddha's Disciples Zen Meditation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Buddhanara Temple in St. Louis	Buddhanara Temple in Atlanta
☺ Every Tuesday 6:30 pm: Program: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 Every Saturday 9am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아톨라야! 이것은 오늘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아주 오랜 옛날에도 있던 말이다.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탓하고,
 사람들은 말이 많다고 탓하고,
 사람들은 말이 없다고 탓하다.”
 그래서 이 세상 아무도
 어떤 비난에서도 벗어날 수 없네.

This is an old saying,
 Atula, it is not a saying of today:
 ‘they blame the man who is silent,
 they blame the man who speaks to much,
 and they blame the man who speaks too little.’
 No man can escape blame
 in this world.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붓다나라 템플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 조지아주 애틀랜타 : 2197 Gravel Springs Rd. Buford, GA 30519

☎ (770) 945-5345

■ 우란분절, 어머니 구한 목련존자 일화서 시작

우란분절(盂蘭盆節)은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백중(百中)’이라고도 흔히 부른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에 들어가 마침내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이뤘다는 효행이야기에서 유래됐다.

<목련경>에 따르면, 목련존자는 어느 날 부모님이 생각나 신통의 눈으로 찾아본다. 아버지는 천상에서 안락을 누리고 계신데 반해 어머니는 지옥에서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 음식을 먹지 못해 굶주리고 끓는 가마솥에 빠져 큰 고초를 겪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호를 받고 지옥에 가 어머니께 공양물을 올렸지만 어머니가 그 공양물을 먹으려고 하자 불로 변해 먹을 수가 없었다. 이에 목련존자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해줄 것을 간청했다.

이에 부처님의 신력으로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지옥을 벗어나 아귀도를 거쳐 축생보인 개의 몸을 받았다가 목련존자의 지극한 발원으로 개의 몸을 벗어나 도리천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에게 음력 7월 보름인 우란분절에 수행승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려 재를 베풀어 어머니를 정도에 왕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같이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해낸 일화로부터 음력 7월 15일이 되면 선망부모를 아귀의 고통에서 천도하기 위해 천도제 즉 우란분재를 지내는 풍습이 시작됐다.

우란분절의 ‘우란분(盂蘭盆)’은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ullambana)’를 한역한 것으로 죽은 이의 영혼이 악도에 가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도현(倒懸)이라 번역해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악도 중생을 구해준다는 뜻에서 우란분재를 베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낳으신 부모 뿐만 아니라 7대의 부모를 구제할 수 있다고 설했다. <우란분경>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음력 7월 15일은 효순한 마음으로써 낳으신 부모와 내지 7대 부모를 생각하며 우란분을 만들어 부처님과 스님에게 공양하여 부모가 길러주고 사랑하여 준 은혜를 갚는 것이니라. 너희들 일체의 불자는 웅당히 이 법문을 받들어 지닐지니라”고 우란분재의 공덕을 강조했다.

우란분절인 음력 7월 15일(양력 8월 28일)은 하안거 해제일이면서 백중 회향일이다. 불자들은 백중 49일전부터 재적사찰에서 기도해 입재한 뒤 회향일까지 선망부모를 천도하는 재나 범회 등을 봉행해 왔다. 스님들은 하안거 동안 정진하면서 생긴 스스로의 허물을 대중 앞에 사죄고 참회하는 자자(自恣)를 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란분재가 언제부터 실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려사>에 따르면 10회 이내의 우란분재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예종 1년(1106)에는 숙종의 명복을 빌고 천도를 하며 범회를 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에도 이런 의례는 계속 전해오면서 우란분절은 불교전통의례를 벗어나 효사상을 고양하는 민족의 명절로 정착됐다. 또한 민가에서는 100가지의 과실을 차려 제사를 지내고 남녀가 모여 음식을 먹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전해지고 있다. 가정에서는 한창 익은 과일을 따서 사당에 천신차례를 올리고 백중잔치를 펼쳤다. 백중 무렵 농촌에선 장이 섰는데 이를 ‘백중장’ ‘백중장’이라고 불렀다.

백중날이 농부와 머슴들의 공휴일인데다가 돈까지 췌기 때문에 이 날 물건을 사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장이 섰다고 볼 수 있다.

우란분절이 출가수행자들에게는 무더운 여름 한 철 용맹정진을 마치는 날, 불자들에게는 일심으로 기도하고 조상을 위해 재를 올리는 날, 고된 노동에 허리 펴 틈 없던 일꾼들에게는 하루 일을 쉬며 흥겹게 어우러지는 날인 셈이다.

백중을 대표하는 풍속으로는 이 날 전후의 ‘용날(辰日)’에 농신(農神)에게 고사를 지낸 후 놀이판을 벌이는 ‘백중놀이’, 농사를 잘 지은 머슴에게 샷갯을 씌워 소등을 태우고 마을을 도는 ‘장원례(壯元禮)’와 씨름놀이가 있다. 또한 산에 올라가 등(燈)을 달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는데 한 사람이 각각 등 하나씩 달아서 자손이 많은 사람은 수십 개의 등을 달았다고 전한다. 오늘날 사찰마다 조상천도를 위해 다는 백등(白燈)이 이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현대에 들어서는 우란분절이 부모와 조상에게 효를 실천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더 확대돼 모든 생명을 해방하는 축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우란분절에 즈음해 방생법회를 갖거나 경로잔치 등을 베풀어 우란분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된다.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 불교국가에서도 우란분절을 걸신축제 또는 위란짓(盂蘭節)이라 부르며 축제행사를 연다.

걸신은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냈던 전설에서 유래한 것을 표현한 것이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각 마을별로 위란짓행사위원회를 결성해 파지옥(破地獄), 초혼(招魂), 산화(散花), 파미(派米) 등의 행사를 연다.

태국은 음력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우란분절 걸신축제를 열고 향, 지옥에서 사용하는 지전, 음식 등을 각 사찰과 상점에서 무료로 나누며 조상과 부처님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억집 만집의 소중한 인연, 부모

부모 인연이 발단돼 백중의식 자리 잡아

명나라를 대표하는 선사 한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운서주굉(1532~1612)이다. 주굉은 27 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30 세에 어머니 상을 당했다. 주굉은 매우 슬피 울며 ‘아버지의 은혜는 망극하다. 내가 이 은혜를 갚으려면 바로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출가를 결심했다. 1565 년 선달 그믐날, 주굉은 부인 탕(湯) 씨와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은애(恩愛)란 허망한 것이요, 생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이가 없소. 나는 이 집을 떠나 출가하려고 하니, 그대는 스스로 갈 길을 정하십시오.”

부인은 주굉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당신이 먼저 떠나십시오. 저도 출가할 예정입니다.”

부인 탕 씨는 이생의 마지막 인연이 될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가산을 정리한 뒤 출가하였다. 그녀는 범명을 ‘주금’이라고 하고 효의암에 살았다. 행실이 청정하고 고귀하여 ‘보살 비구니’라고 불렸다고 한다. 부인은 주굉보다 한해 먼저 입적하였다.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부부가 동시에 출가한 예가 또 있는데, 두타제일 가섭 존자이다. 가섭은 일찍이 출가하려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출가하지 못했다. 존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산을 정리해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인과 함께 출가자의 길을 걸었다.

32 세에 주굉은 서산(西山)의 무문성천 문하에 출가하였다. 출가 후, 주굉은 행각을 하였는데, 행각 중에도 모친의 3 년상이 끝나지 않아 절망 속에 늘 위패를 모시고 다니면서 공양 때는 먼저 어머니께 올리고, 공양을 하였다고 한다.

중국 근현대 선지식 허운(1840~1959)은 양무제의 후손으로, 19 세에 출가하였다. 허운은 43 세에 절강성(浙江省) 보타산을 출발해 산서성(山西省) 오대산까지 3 보 1 배를 하였다.

절을 하는 목적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어머니와 출가로 인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허운은 3 보 1 배하면서, 3 년이 소요됐고 거리로 4000km 에 해당한다. 또 허운은 58 세에 절강성 영파 아육왕사에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처님 사리에 하루 3000 배를 하여 100 만 배를 채운 뒤, 소지공양을 하였다. 이처럼 스님들의 부모공양은 지극했다.

한국의 효자 스님으로는 진묵(1562~1633)이 있다. 진묵 스님은 홀로된 모친을 사찰에서 모시고 살았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출가해 대가 끊어졌으니, 내 묘소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라고 탄식하자, 스님은 어머니께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스님의 말대로 어머니 묘소가 현재 전북 김제 성모암(聖母庵) 내에 위치해 있는데,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을 무렵, 몇 차례의 법난이 있었다. 그때마다 승려가 출가함으로써 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찰하는 문제가 유교 문화와 충돌하였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세 달 가량 머물다 내려오기도 하였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부모의 은혜는 매우 위대하다. 우리들을 안아 길러 주셨고, 수시로 보살피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병을 살펴주셨기에 저 해와 달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의 은혜가 막중하므로 은혜 갚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비구들이여, 마땅히 부모에게 공양해야 할 것이요, 항상 효도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중일아함> ‘선지식품’)

이렇게 부처님을 위시해 스님들이 출가자라고 하여 부모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인연을 귀하게 여겼으며, 소중한 인연에서 발단되어 후대에 불교에서 백중 의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 Year 2015 Youth Dharma Summer Camp (2015 년 청소년 달마 여름 불교 캠프)

6 학년부터 12 학년을 대상으로 1 박 2 일 템플 스테이를 포함한 “행복한 나를 찾아 떠나는 7 주간의 청소년 달마 여름캠프” 가 2015 년 6 월 13 일부터 7 월 25 일까지 애플란타 붓다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친구들이 더욱 친해지기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4 컷 만화 그리기”를 시작으로 “비전 카드 만들기”, “내 마음 속 들여다 보기”, “모래 만다라 그리기”, “사찰 예절 배우기”, “보트타기 및 야외 활동”, “숲길 걸으며 자연 관찰하기”, “별자리 관찰”, “촛불법회”, “견기 명상”, “요가”, “부모님께 편지쓰기”, “1 박 2 일 템플스테이”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캠프기간동안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민정” 과 “한도연”학생이 7 주간의 달마 여름 캠프에 열심히 참가해서 개근을 했습니다. 개근을 한 두 학생에게는 붓다나라에서 학생의 열의에 격려하기 위해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캠프기간동안 James Russell (Pancho) 교수님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모래로 만다라 그리기



촛불 법회



보트타기



수료증을 들고 함께

“사찰음식 비법이요? 음식은 마법이 아닙니다”

향운암은 채마밭에서 양배추, 고추, 오이, 도라지, 가지 등 많은 채소들을 직접 재배한다. 근처에는 화장실인 ‘정랑’에서 모은 인분 등을 거름으로 사용해 환경친화적으로 키우고 있다. 또 장독대에는 땅에서 나는 온갖 풀을 모은 ‘백초차’와 꽃을 모은 ‘백화차’가 익어가고 있다.

사찰음식은 힐링이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웰빙식에서 마음까지 치유하는 힐링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찰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문화로서의 본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찰음식이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세계인들이 칭송하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찰음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 담백하고 정갈하게 만들어 먹는 음식이 사찰음식이다. 일부러 맛을 더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는 사찰음식은 ‘더 맛있게’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찰음식의 본래 모습을 조용히 실천하며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있다. 경남 함양군 안의면, 덕유산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향운암의 명천스님이다. 명천스님에게 음식재료는 정해져 있지 않다. 채소와 열매, 꽃, 나뭇잎 등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스님에게는 음식재료다. 여기에는 독초도 포함돼 있다. 조선 숙종 대 희빈 장씨가 마시고 죽었다는 사약의 재료인 초우도 스님 앞에서는 그저 음식재료 중 하나일 뿐이다. 스님은 이 독초를 약초와 섞어 감초로 만든다. 물론 독을 제거하는 스님만의 비법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사찰음식에 있어 명천스님은 ‘재야의 고수’다.

스님과 사찰음식의 인연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2년 원적에 든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명천스님은 사찰음식의 길로 접어들었다. 1990년경 성수스님과 함께 현재 암자(당시는 토굴)로 단 둘이 들어갔다. 노스님은 명천스님에게 선언하듯 말했다. “시장 보지 않고 살아보세.” 이 한 마디로 명천스님은 토굴 주변에서 나는 것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소가 잘 먹지만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쇠뜨기도, 대부분 잎을 데쳐 먹는 머위의 꽃대도, 제비꽃 뿌리도 음식재료가 됐다. 한번은 전 조계종 중정 서암스님이 노스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마땅한 반찬이 없어 고민하던 명천스님은 들판에 핀 진달래꽃과 민들레꽃과 잎 등을 따서 곁절이를 똑딱 만들어 올렸다. 스님들은 좋아했다.

명천스님은 노스님을 시봉하기 전까지 음식에 대한 관심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다. “큰스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그나마 출가 전 속가 어머니가 손재주가 많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풀과 약초를 갖고 음식을 잘 만드셨거든요.” 지난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실태조사단이 스님을 찾았을 때 내놓은 것이 도시락이다. 스님들이 만행을 떠날 때, 학인 스님들이 나들이 갈 때, 세간 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개발한 것이 도시락이다. 명천스님 자신이 서울 등지로 출타하면서 먹는 것이 맞지 않아 도시락을 싸가던 경험을 살려낸 것이다. 이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사찰음식 전문가, 재야의 고수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사찰음식은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사찰음식이기 때문이다.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대해 묻자 스님은 손사래부터 쳤다. 그런 걸 답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스님은 “사찰음식은 솔직히 맛이 없지 않냐”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사찰음식을 처음 먹어본 분들은 맛있다고 하지만 3일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접근하지만 음식 맛으로만 따져보면 일반인들이 오랫동안 섭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스님은 맛이나 레시피 위주로 구성되는 현재 음식문화에 사찰음식까지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사찰음식은 그냥 채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 내재된 정신과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찰음식이 다른 음식들과 차별을 이루는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이 생각하는 사찰음식은 우선 수행식이다.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 견성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약이 사찰음식이다. 또 감사식이다. 내 밥그릇에 놓인 쌀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다. 더불어 스님은 한국불교의 1700년 역사는 우리 음식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찰음식이 ‘평’소리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는 마법같이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교가 전래된 신라, 백제 등 삼국시대에는 채식이 유행하고 고기잡이 등 살생이 왕명으로 금지된 적도 있다. 고려대에는 장류와 함께 김치 등 저장음식, 채소 조리법 등이 다양하게 개발됐다. 조선시대 음식조리법 등이 적힌 <규합총서>를 보면 사찰음식과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명천스님은 “사찰음식의 대중화는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며 “수행자가 이러한 식생활을 하며 불교 전래 이래 지금까지 도업을 이루는데 매진하고 있는, 수행자의 음식이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님은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시행을 제안했다. 일하고 예불과 참선하면서 먹은 수행의 일부분으로서의 사찰음식을 세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물었다. 25년간 음식을 하면서 스님만의 비법이 있지 않느냐고. 스님의 답변은 이랬다. “음식은 마법이 아닙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사찰요리:

☺ 들깨 생콩가루 칼국수

재료 : 밀가루 2 컵, 생콩가루 1 컵, 물 2/3 컵, 들깨즙 10 컵, 애호박 반 개, 표고버섯 4 개, 청장 2 큰술

만드는 법

- ① 밀가루와 생콩가루를 미지근한 물로 반죽하여 오래 치댄 다음 밀대로 알파하게 밀어서 채 썬다.
- ② 애호박은 소금으로 간하여 볶고, 표고버섯은 간장으로 간을 하여 볶아둔다.
- ③ 냄비에 들깨즙을 붓고 끓이다가 칼국수를 넣고 국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끓이다가 청장으로 간을 한다.
- ④ 완성되면 그릇에 담고 볶아놓은 호박과 표고버섯을 곁들여 낸다.

칼국수를 반죽할 때 생콩가루를 넣으면 밀가루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맛도 한결 구수하고 색깔도 노르스름해져 보기도 좋다.

☺ 가지 냉국

재료 : 가지 4 개, 홍고추 2 개, 풋고추 1 개, 청장 2 큰술, 통깨 1 큰술, 식초 1 작은술, 고춧가루 1 작은술, 다시마 1 장(10×10cm), 물 5 컵

만드는 법

- ① 가지는 씻어서 꼭지를 떼고 2 등분하여 반으로 갈라서 김이 오른 찜통에 살캉거릴 정도로 찢 다음 식혀 적당한 크기로 찢는다.
- ② 다시마는 젖은 면보로 깨끗이 닦고, 찬물에 담가 불렀다가 그 물 그대로 끓인 다음 차게 식혀둔다.
- ③ 홍고추와 풋고추는 씨를 빼고 곱게 채 썬다.
- ④ 가지에 청장과 고춧가루, 식초, 통깨 등을 넣어 무친 후 간이 배면 고추채와 식혀둔 다시마물을 부어 냉국을 만든다. 다시마는 젖은 면보로 깨끗이 닦은 후 찬물에 담가 불렀다가 찬물에 넣어 끓기 시작하면 건져내야 더 맛있는 국물을 낼 수 있다.

우란분절(백중) 기도

백중(우란분절)지절을 맞이하여 애틀랜타 붓다나라는 양력 8월 23일(음력 7월 10일)에,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는 양력 8월 30일(음력 7월 17일) 일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백중(우란분절) 천도 제사를 올립니다.

우란분절 천도재는 출가자의 수행 공덕과 보시자의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전통 의식인 것입니다. 삶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어 널리 이웃에게도 선망조상 및 유주무주 고훈 영가천도의 귀중함을 권선 하시고 이웃과 함께 불사인연 나누시어 나와 내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그 인연 공덕으로 무량 복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붓다나라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칠월 보름 백중절 환한 달빛 속에
목련존자 지극한 효심 따라 천도의 정성 올리오니
먼저 가신 조상님 인로왕 보살님 따라
정도에 왕생하여 진정한 열반의 법열을 누리소서.
육도 윤회 중생들과 외롭게 떠도는 영가들이여,
탐, 진, 치 삼독의 어둠 벗어나
한 가닥 불심을 회복하소서.
해탈의 원적산을 어서 속히 오르소서

무명 세월 속에 한없이 지은 중생의 죄업을
두 손 모아 참회하오니,
지옥, 아귀, 축생의 가엾은 죄보 중생들
우란분절에 올리는 저희의 작은 정성
은 법계에 두루 회향하오니,
악한 세상 벗어나
감로의 청량 법문 모두 얻게 하소서.
무간 지옥에도 연꽃이 피어올라지이다.

백중천도 기도 동참비는 위패당 \$100.00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분은 일십만원 입니다.)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우신 신도님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과 상의 하셔서 기도 동참비를 절충해 주십시오.

법회소식 NEWS

- 불기 2559 년 (2015 년) 백중지절 (우란분절)을 맞이하여신도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여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부처님 제자중에 신통제일이며 효심깊은 목련존자께서 지옥에 계신 어머니를 천도하신 날에서 백중의 유래를 찾을수가 있습니다. 백중을 맞이하여 붓다나라 템플 (Buddhanara Temple)에서는 업장소멸 기도와 선망 부모및 인연있는 유주무주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내 한 목숨이 유지될 수 있는 근원은 다른 생명의 희생위에 있으므로 모든 유주무주 모든 생명체들에게 감사함을 보냅니다. 행복의 씨앗인 공덕을 쌓는 백중날 에 천도재 및 업장소멸 기도에 모두 동참하시어 선근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② 애틀랜타 붓다나라 백중 천도 제사 및 업장소멸 기도: 8 월 23 일 10 시 30 분 (양력)

②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백중 천도 제사 및 업장소멸 기도 : 8 월 30 일 10 시 30 분 (양력)

** 동참금 : 위패당 \$100.00 ;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분은 일십만원

Pay to the Order of BUDDHANARA TEMPLE

- 8 월 30 일 (다섯째주 일요일) 애틀랜타 붓다나라 법회는 쉽니다.
- 제 1 회 붓다나라 장학생에 윤혜림 (Hea Rim Yoon) 학생이 선발 되었습니다.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수여되었습니다.
- 행복한 나를 찾아 떠나는 7 주간의 청소년 달마 여름 캠프를 성공적 마쳤습니다. 이 기간동안 James Russell (Pancho) 교수님이 특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함께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부처님의 동체대비 가르침을 실천할 때 입니다. 네팔 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붓다나라에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소중한 성금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네팔 현지로 전해집니다. 많은 동참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314)993-0185; 애틀랜타 붓다나라 (770)945-5345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 (세인트루이스) 과 둘째주 일요일 (애틀랜타)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붓다나라 인등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 이루시길 축원 올립니다.

Buddhanara Temple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붓다나라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